

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다

마가복음 7:31 - 37

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으로 찾아가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

없어도 될 것이 있다

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선천적인 요인이 아닌 후천적으로 말을 듣지 못하고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. 이 사람은 이에 분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우리의 삶에도 없어도 될 것이, 일어나지 않아도 됐을 일이 일어나면서 방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. 모든 사람은 이런 것들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. 예수님은 본문에서 만난 이 사람을 보고 탄식하셨습니다. 그에게는 예수님이 탄식하실 만큼 답답한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. 예수님은 이 사람을 헤세드, 즉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. 그 사람의 치유와 회복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대가 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부터 이미 구원을 준비해 두셨습니다.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 구하면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.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.

있어야 할 것이 없다

본문에 나온 귀먹고 이 어눌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.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. 그런 이 사람에게 장애보다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.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들은 세상의 문제들이 아닌,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신 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, 결국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. 그것이 그 사람의 순종의 한계였을 것입니다. 이런 약한 순종은 믿음이 어린 것을 반영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유명세가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. 예수님은 말씀 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으셨습니다.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 자를 위해 무리에 떨어져 데려가, 병을 고치는 행위를 통해 그의 믿음의 눈높이에서 치유하셨습니다. 이렇게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이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.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.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정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실 것입니다. 믿음이 성장하는 2024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.